

반구대암각화에서 고래표현의 조형성

Plasticity of Whale Expression in Bangudae Petroglyphs

이하우(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Rhee, Hawoo(Bangudae Petroglyphs Institute, University of Ulsan)

<요약>

반구대암각화는 적극적 의지로 이루어진 우리 미술사의 시작이다. 그동안의 유적연구는 상징성의 복원이라는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본 연구는 조형성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유적을 바라보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표현물 중에서 62마리로 조사된 고래표현을 통하여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고래는 부감법에 의한 파노라마적 구성 상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성의 세부적 표현방식으로는 먹이활동의 모습을 잘 포착하고 있으면서, 다시점에 의한 표현이라는 점이다. 또한 비틀림 구도의 적용을 통하여 고래는 생태현상과 함께 보다 실감나는 조형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반구대에서 고래표현의 조형적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형요소로 하여 반구대암각화에서 고래는 그 종이 구분되는 수준의 도감적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반구대암각화는 세계 암각화에서도 탁월한 가치를 갖는다.

<Abstract>

Bangudae Petroglyphs which was made of positive will of moulding is a beginning of our history of art. Existing archeological research was just focused on restoration of symbolism.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pproach Bangudae Petroglyphs in terms of formative analysis. The core of analysis is illustration of 62 whales corresponding to approximately 27 % of the total expressions.

Consequently, First of all, illustration of whale in Bangudae Petroglyphs shows their hunting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Bird's-eye view which makes us to feel better sense of reality. Second, this is an expression of multi-view. Third, it was made of torsion structure. Due to these expression mode, whales of Bangudae Petroglyphs was equipped with illustrated expression that are separated from other species. So, for this reason, Bangudae Petroglyphs is the prominent example of petroglyphs all around the world.

1. 서론

암각화는 선사시대 인류문화의 총체적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적이다. 특정한 시대의 인류 삶의 형태를 잘 전해주기 때문에, 그 어떤 고고자료보다도 폭넓은 문화적 가치를 갖는다. 표현주제나 내용도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예컨대 신석기시대는 동물이 보편적 소재가 되었으나, 청동기시대에는 인간자신이나 대자연의 현상에 관심이 커지면서 그것이 의미 있는 표현소재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적 발전정도에 따라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의식의 대상까지도 달라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구대암각화는 옛 사람들의 적극적 조형의지에서 나온 한국미술사의 시작이다. 그동안 한국 암각화에 대한 연구는 상징성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본 연구는 반구대암각화를 성격이나 상징성의 의미와는 별도로, 조형적 표현물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할 수는 없을까하는 입장에서 유적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생각은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접근방법이 신앙이나 종교적 상징이나 생활사적 해석에 치중되었던 그동안의 연구방식에 더하여, 반구대암각화를 잘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론적 접근을 위한 것이다.

2. 세계 암각화에서 고래표현

암각화는 바위에 새긴 그림으로서, 일종의 심조(深造)와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종종 해외연구자들은 암각화를 조형 활동의 결과물로 바라보고자 하는 시각도 있어왔다. 같은 입장에서 이때까지의 암각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여 접근하고자 할 때, 우리는 표현물에 대한 구성 상태나 조형적 관점에서 유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바위를 쪼아서 형태를 구축해 가는 암각화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서는 먼저 그 형태를 분석하는 것으로 다가설 수 있다. 반구대에서 조형적 표현력이 돋보이는 부분은 그림 1과 같이 유적 좌측에서 고래가 무리를 이루고 있는 장면을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본고에서 주의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도 다양한 표현물 중 고래표현을 중심으로 그것을 분석하고자 한다. 적어도 반구대암각화에서 고래는 호랑이와 함께 유적에서 대표성을 갖는 표현물이기 때문이다.¹⁾ 또한 고래는 해외 암각화유적의 그것과도 절대적 우위에서 유적의 탁월성을 말할 수 있는 특징적 표현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기존의 유적연구와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방법은 암각화의 조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고래표현의 특징적 현상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외 암각화에서 조사된 고래 표현물의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 암각화에서 고래 표현물이 조사된 곳(허 권 외 2012:123-134)은 세계유산암각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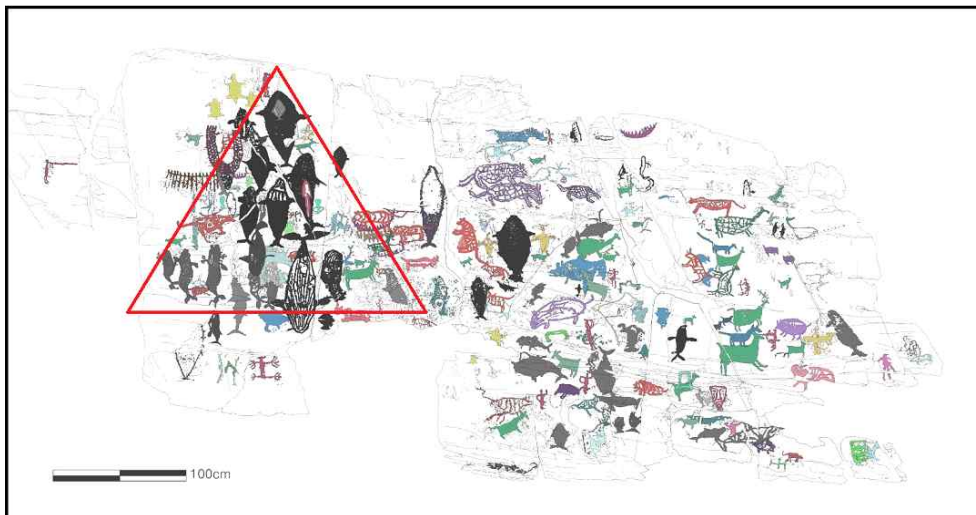


그림 1. 반구대암각화에서 고래표현

이름 높은 알타(Alta)암각화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다수의 유적이 있다. 사실상 고래 암각화유적으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곳은 노르웨이이다. 노르웨이는 알타를 비롯한 고래 표

1) 반구대에서 호랑이는 고래와 사슴과 다음으로 많은 개체로 조사되었다. 호랑이는 동북아시아 암각화에서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현물이 가장먼저 알려지게 되면서 일찍이 포경의 중심지로 받아들여졌던 곳이기도 하다.

노르웨이에서 고래는 알타에서 약소한 여러 점의 그것이 조사된 바 있으며, 그 외에 고래 암각화가 나오는 유적으로는 레이크네스나 스코게르베이엔, 로갈란드 멜링, 퇴퇴이 등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중에서 수준 있는 조형적 표현으로 나타난 곳은 스코게르베이엔(그림 2-a)정도인데, 이곳에서 고래는 비교적 규격을 잘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고래의 신체를 정교한 격자문의 선각표현으로 장식하는 등, 표현상의 균제미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노르웨이의 고래 표현물도 단지 고래라고 하는 개체의 표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레이크네스에서는 돌고래로 보이는 거의 등신대에 가까운 선각 표현물이 나왔고, 그 외에는 모두 그만그만한 표현물로 구성되는 것이 노르웨이에서 고래표현이다.

러시아에서는 카렐리야공화국의 잘라부르가(그림 2-b, c), 추코트키반도의 빼그띠멜(그림 2-d)강변에서 고래 암각화가 발견되었다. 두 유적은 러시아에서 서쪽과 동쪽 양 극단에서 조사된 유적으로, 이곳에서 고래역시 고래의 생태적 특징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지만, 잘라부르가에서 그것은 사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반구대와도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

잘라부르가와 빼그띠멜에서, 그리고 알타를 비롯한 여러 유적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표현물로는 우미악²⁾에 의하여 포획되는 고래가 있다. 최근 반구대의 고래잡이배가 그것이라는 견해가 있었으나(송화섭 2012:33-50, 2016:75-95), 전반적인 배의 형태를 볼 때, 우미악의 표현상 속성이 반구대와는 크게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전혀 진정성을 찾을 수는 없다.

호주에서는 시드니 주변의 여러 유적에서 고래가 나왔다. 특히 쿠링가이 체이스 국립공원의 크고 작은 암각화유적에서는 다수의 고래 표현물이 산재하고 있는데, 고래는 그림 2-e와 같이 거의 등신대에 가까운 큰 규모로 조사되고 있다. 고래의 형태적 특징은 선각묘사에 그치고 있어서 조형적 현상을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래와 다른 동물, 그리고 인간과 소통하는 고래의 모습이나 사랑을 나누는 고래 등 다양한 표현형태는 아보리진들이 대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이하우 2002:45-68).

미국 워싱턴 주의 올림픽반도의 오제페에서도 그림 2-f와 같은 고래 표현물은 확인된다. 그림 2-f는 해와 달, 그리고 우는 고래라고 알려진 것으로, 지역적 설화가 바탕이 된 표현물에서 고래는 상투적으로 받아들여진 형태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밖에도 여러 암각화유적에서 소략한 규모의 고래가 나온 것이 있다. 그러나 반구대에서 조사된 고래처럼 규모에서, 그리고 반구대암각화의 조형적 표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상에서 조사된 고래표현을 반구대암각화에 대비하였을 때, 사실상 비교자료로서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적어도 반구대암각화에서 고래만큼 사실적 묘사력이나 종의 분류가 가능할 정도의 도감적 표현력에서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표현의 우수성이 확보된 스코게르베이엔과는 표현방식에서부터 크게 차별적이고, 비교적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하는 잘라부르가의 고래표현도 반구대의 표현상 정교성, 묘사력, 미적 구성요소에서 나오는 감흥과는 차이가 크다.

2) 바다표범 또는 사슴, 순록의 가죽을 고래수염이나 부목으로 만든 늑골이나 목제 구조물에 펼쳐서 붙여 만든 배이다. 가볍고 속도가 빠르며 날렵하고 길쭉한 모양이 대부분이다. 여성도 쉽게 다룰 수 있으며, 주로 가볍게 물자를 옮기거나, 남성들이 순록이나 고래를 잡기 위하여 사용했다고 한다(<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6a3315a>의 내용 저자수정,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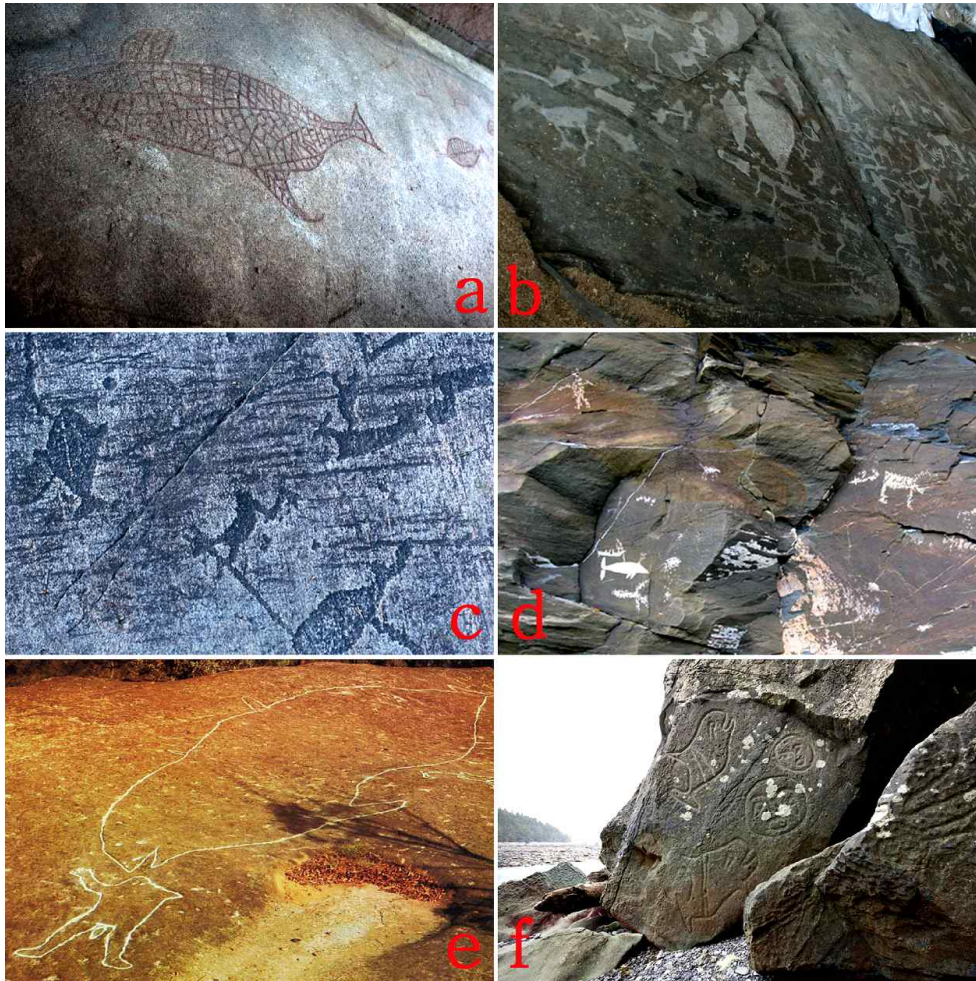


그림 2. 세계 암각화에서 고래표현(a-Skogerveien, Norway, 이하우. b, c-Зала вруга, Карелии, devlet. d-Пегтымеля, Чукотки, Старший научный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матери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РАН. e-Huge, Kuring gai Chase National Park, Sydney, Babara M.. f-Ozette, Olimpic Penninsula, Paul Gordon.

그 어떤 암각화유적이라고 하더라도 고래와 같은 동일개체에 대한 표현력에서 적절한 비교대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반구대암각화처럼, 7개의 종으로 구분되는 고래의 도감적 표현력에는 닿지 못하는 것이 세계 암각화에서 대부분의 고래표현이다.

3. 반구대암각화에서 고래표현의 조형성

그렇다면 반구대암각화에서 조형적 표현의 특징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반구대암각화의 표현물 중, 고래는 전체에서 약 27%에 해당하는 62마리로 조사되었다(이하우 2007:39-76). 고래에서 조형적 표현이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그림 1의 △안과 같다. 고래는 마치 하늘을 향하여 승천하는 것처럼 전체는 삼각구도를 잘 갖추고 있다.

높은 곳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는 관찰법을 우리는 부감법(俯瞰法)이라고 한다. △부분은 특히 부감법에 의한 화면구성을 하고 있어서, 표현물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징성과 함께 그 실체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을 파노라마적 화면구성이라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활기찬 화면구성을 가능하게 해 준 세부적 표현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반구대에서 고래에 대한 표현방식의 특징은 먼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첫째, 반구대암각화에서 고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먹이활동의 모습을 포

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여러 개의 관찰시점, 즉 다시점(多視占)에 의한 표현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셋째, 비틀림 구도에 의하여 실체성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점을 놓고 그 세부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3.1 먹이활동의 순간표현

고래가 실지로 바다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림 3은 그러한 자연 상태의 고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에서 왼쪽은 고래가 새끼와 함께 유영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제 막 먹이를 흡입하여 배가 부른 고래의 모습이다. 그런데 반구대에서 고래는 그림 3-좌의 형태와는 달리 몸이 다소 부풀어있는 모습이고, 이를 볼 때 반구대에서 고래표현이라면 그림 3-좌와 같이 체적에서부터 차이가 있어서, 그것이 보통의 유영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적어도 그런 관측되는 형태 그대로를 암벽에 새겼다고 한다면 통상의 한 마리 물고기이상으로 바라보기조차 힘든 모양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고래를 묘사하는 것으로 물고기와는 차원이 다른 실감되는 고래의 모습을 담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반구대의 주인공들은 고래라고 하는 동물의 가장 고래다운 모습을 표현하고자 먹이활동으로 배가 부른 순간의 고래를 묘사하는 것으로 그것을 잘 해결하였다(그림 4-A). 이것은 물고기와는 차별적인, 고래라고 하는 동물의 가장 그다운 순간의 포착이다. 그래서 반구대에서 고래표현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대한 체형 그대로를 반영하는 상투적 형태로서 배가 부른 고래를 묘사하는 것으로 성공하고 있다. 이와는 다른 표현형태로 나타나는 천전리 각석에서 고래표현을 보면 반구대와 차별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고래(좌-분기 및 유영, 우-먹이활동의 고래)

3.2 다시점 표현

고래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실제적 접근이 용이한 표현방법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다시점 표현이다. 다시점 표현이란 하나의 사물을 관찰하는데 있어서 두개이상의 관점에서 관찰되는 형태를 동시에 하나의 개체에 나타내는 기법을 말한다. 예컨대 그림 4-B와 같은 표현물은 우선 보기에 측면에서 관찰된 고래이다. 그러나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지 측면관찰이라는 하나의 관점을 벗어나, 전체의 형태는 측면에서 보이는 모습을 기본적으로 표현하였다(그림 4-B-3). 그러나 등에서 분기하는 모습은 고래의 정면에서 관찰된 형태이고(그림 4-B-4), 꼬리는 위에서 내려다 본 형태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3개의 시점에서 달리 보이는 형태를 하나의 개체에게 통합적으로 묘사한 것이다(그림 4-B-5). 이러한 표현방법을 우리는 미술용어에서 다시점 표현이라고 한다.

반구대암각화에서 측면 표현된 고래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기법을 채용하였다. 이러한 표현기법은 단지 반구대암각화만의 독특한 기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보다 넓은 지역에서 조사되는 많은 암각화 표현에서 이러한 양상은 잘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효율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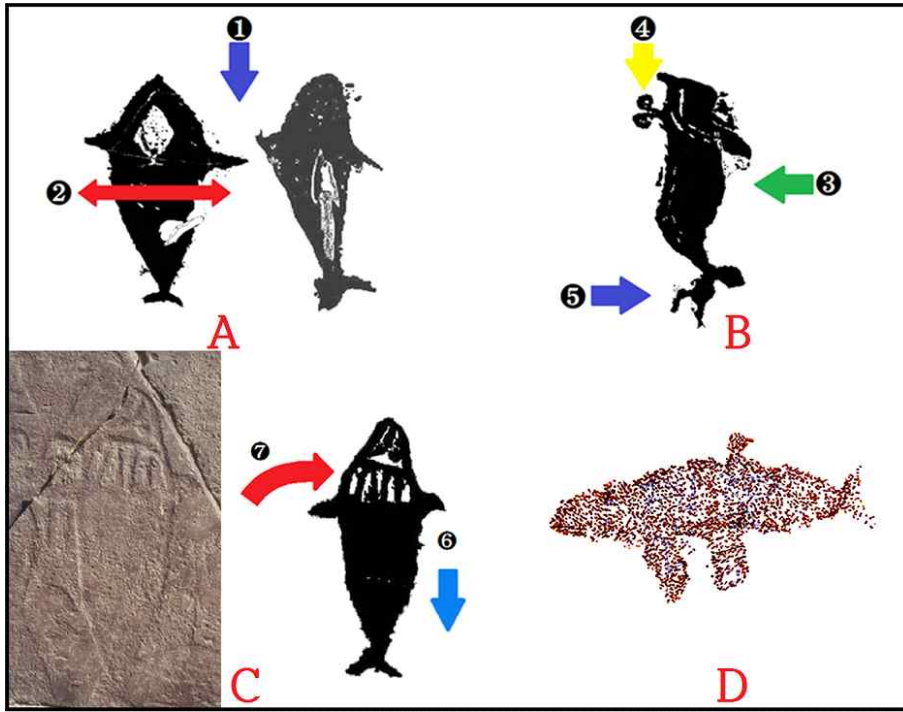


그림 4. 암각화의 고래표현(A~C 반구대암각화, D 천전리 각석)

으로 적용된 것이 바로 반구대에서 고래표현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을 그림 4-D와 같이 하나의 단 시점으로 묘사된 천전리 각석의 고래와 비교하였을 때, 표현물의 입체적 인지에서 나오는 조형미의 차별적 현상은 명확하다.

3.3 비틀림 표현

또 하나 사물표현의 적극적 조형의지에 따르는 기법으로 비틀림 기법이 있다. 비틀림 기법이 잘 구현된 표현물은 그림 4-C와 같다. 그림 4-C는 고래의 생태상 먹이활동의 순간을 나타낸 것인데, 이러한 모습은 고래가 상체를 비틀어 옆으로 세워서 먹이를 흡입하는 바로 그 순간적 모습을 잡아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상반신은 비틀어서 옆으로 세운 상태를 묘사하였고, 하반신과 양 지느러미는 원 상태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관찰되는 시점 그대로를 묘사하였다.

통상 이러한 생태를 가진 것은 귀신고래의 차별적인 특성(손호선 2012:21-32)이라고 하고, 먹이활동을 할 때 오른쪽 머리로 얇은 바다의 해저를 긁어서 훑아내는 부유물에서 먹이를 채취하는 귀신고래 모습과도 같다(EBS). 이렇게 먹이활동 하는 한 마리의 고래에게 두개의 관찰시점을 교차적으로 적용하는 기법을 다시점 표현과는 또 다르게 비틀림 기법이라고 하여 그것을 반구대암각화의 고래표현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4. 맺음말

본고는 반구대암각화에서 고래표현이 갖고 있는 조형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논의된 몇 개의 조형요소는 반구대암각화에서 고래에게 있어서 표현력을 적절하게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장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반구대암각화는 전체적으로 파노라마구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화면구성을 가능하게 한 기본요건은 부감법의 적용이 있다.

-반구대에서 고래표현은 먹이활동을 하고 난 배부른 고래의 상태를 나타냄으로서 비로소

가장 고래다운 형태포착이 가능하였다.

-고래표현은 다시점 표현과 함께, 비틀림 기법을 적용하면서 반구대에서 고래는 보다 실제적인 생동감을 갖고 표현되었다.

이상과 같은 표현기법으로 하여 반구대암각화에서 고래는 구체성을 잘 획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의 인지능력을 자극하여 실물의 고래를 바라보는 것에 근사하고 있다. 원시미술의 조형원리의 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다시점 표현, 그리고 비틀림 기법의 효용성은 반구대 고래표현에서 보다 실제감 있는 표현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마치 근대의 큐비즘 회화와도 같은 생생함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성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사물의 인지능력에 의한 표현이 우선시되었던 결과이고, 그래서 반구대에서 고래는 비록 어두컴컴한 암벽에 새겨졌으나 우리에게는 종이 구분되는 도감적 묘사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실제감을 체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반구대암각화의 고래표현을 두고 세계 암각화에서 조형적 표현력의 특출한 예라고 하는 것이다.

5. 참고문헌

손호선, 2012, 반구대암각화의 고래종(種). 한국암각화연구 16:21-32.

송화섭, 2012, 북방 수렵유목문화 관점에서 본 반구대암각화. 한국암각화연구16:33-50.

송화섭, 2016, 한국 암각화의 조성주체와 제작배경-해양지리적 관점을 중심으로-. 대곡천암각화군 역사문화사 비교연구:75-95, 문화재청.

이하우, 2002, Basin Track을 통해서 본 시드니 주변의 바위그림. 한국암각화연구 3:45-68.

이하우, 2007, 반구대암각화의 제작 층에 대한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58:39-76.

허 권 외, 2012, 대곡천 암각화군 보존학술조사 연구용역. 문화재청.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6a3315a>

EBS, Nature Wonder Land

【 저자 소개 】



이하우(Ha-woo Rhee)

문학박사.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교수.

주요논문: 울산 반구대암각화의 제작층 분석연구(2004), 한국 선사암각화의 제의표현에 관한 연구(2009), 대곡천 암각화군의 제작 기법연구(2016) 등.

저서: 칠포마을 바위그림(1994), 몽골의 암각화(1998, 공저), 잃어버린 신화 바위문화이야기(2000), 알타이의 바위그림(2008, 공저), 한국 암각화의 祭儀性(2011)